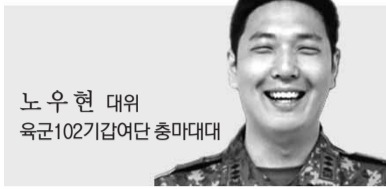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나는 군번이 3개다. 병사로 입대해,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지금은 장교로 복무 중이다. 내 첫 복무지는 육군훈련소였다. 군 생활의 시작부터 교육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몸소 느끼며 교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했었다.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은 내가 이병 때도, 지금도 모두가 외치고 있다. 그리고 나 역시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을 해왔다고 자부했다. 지금 이곳 102기갑여단 총마대대에서 임무수행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대대로 전입해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지휘관 중심의 정신전력 교육’이다. 평소 정신전력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대대장께서 직접 움직이면서 교육하는 모습은 낯설었다.

우리 부대는 ‘전사연구와 연계한 체험형·행동형 정신전력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교관이 사전에 연구한 전사를 대대에서 미리 이론 교육을 하고, 현장에 방문해 전투가 이루어졌던 실지형을 보고 느껴봄으로써 대적관과 안보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함양하기 위함이었다. 정훈장교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교육을 제안했고, 최



노우현 대위
육군102기갑여단 총마대대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에 그쳐...

‘실전 같은 정신전력 교육’
체험의 중요성 되새겨야

종적으로는 분·소대장까지 교관이 돼 교육을 준비하며 스스로 많은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춰 ‘월비산-351고지 전투’의 교관은 대대장, 교육 대상은 중대장이었다.

대대장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대장들에게 교육했고 이후 실제 전투가 이뤄졌던 현장을 보기 위해 금강산 전망대를 방문했다.

수많은 선배 전우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월비산과 351고지를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단순히 지식으로만 느껴졌던 ‘월비산-

351고지 전투’가 당장 내가 싸워야 할 전투현장으로 여겨졌다. 함께 있던 중대장들 모두 나와 같은 마음을 느꼈고, 우리가 다시 저곳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치열한 전술토의까지 이어졌다.

이번에 경험한 체험형 정신전력 교육은 지금까지 경험한 정신전력 교육 중 가장 효과가 좋았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지금까지도 또렷이 기억에 남아 중대장으로서 전술적 식견을 한층 더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우리는 정신전력 교육의 중요성을 귀가 닳도록 들어왔다. 하지만 바쁜 야전부대의 현실 속 정신전력 교육은 타 교육훈련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을 주장하는 우리가 정작 ‘실전과 같은 정신전력 교육’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공자는 이런 말을 했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까마득한 과거부터 강조됐던 체험의 중요성, 어쩌면 가까이 있는 훌륭한 교육 방법을 너무 멀리서 찾았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예비군훈련을 준비하며



노동훈 군주무관
육군37보병사단 화랑여단

최근 정신을 무장하고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자 국방정신전력원 군인정신리더과정 교육을 다녀왔다. 여기서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전쟁중 하나인 임진왜란사를 배우고 군인정신에 대해 깊게 생각하면서 교육받는 자세는 점점 더 진지해졌다.

나는 임진왜란과 충무공의 군인정신을 이해하기 위해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를 완독했다. 책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었다. ‘그해 겨울 해야될 수 없이 많은 격군과 사부들이 병들어 죽고 굶어 죽었다. 나는 굶어 죽지 않았다. 나는 수군 통제사였다. 나는 먹었다. 부하들이 굶어 죽어가는 수영에서 나는 끼니때마다 먹었다. 죽은 부하들의 시체를 수십 구씩 묻던 날 저녁에도 나는 먹었다.’ 책 속 전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참혹하고 절절한 상황들의 연속이었다.

왜란으로 국토는 피폐해졌고 왜적 말고도 굶주림이라는 적과 싸워야했다. 백성과 부하들이 죽어가는 가운데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끼니를 챙겨 먹어야만 했던 이순신 장군의 심정은 어땠을까?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차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군인정신은 조직 차원의 가치인 군기, 사기, 단결, 교육훈련과 개인 차원의 가치인 명예, 충성심,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 책임완수, 애국애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사 속에서 군인정신은 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었다.

‘금신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 尙有十二) 출사력 거전 즉유가위야(出死力 拒戰 則猶可爲也)’ 이 말은 수군이 취약해 왜군을 막지 못할 것 같으니 육지에서 싸우라는 조정의 명령에 이순신 장군이 올린 장계에 있는 어록이다. ‘신에게는 아직 전선 열두 척이 있사오매, 죽을힘을 다하여 싸움으로 나가 막으면 오히려 가능한 일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죽기를 각오하여 싸워 이기겠다는 군인정신이 잘 드러난 말이다.

교육 전 나는 예비군훈련교관으로서 전문성과 친절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교육을 듣고 난 지금은 그 무엇보다 ‘군인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이 흘러도 계속되고 있고, 작년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숨졌다. 김정은은 남북을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전쟁을 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 높이고 있다. 주적인 북한과 총구를 겨누고 있는 지금,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여러 국가의 전쟁을 살피며 상비전력만큼 예비전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실감했다. 나는 예비전력 최전방에서 예비군훈련교관으로 임무수행 중이다. 군인정신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올해에도 나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예비군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고려에서 배우는 소통의 리더십

최근 고려와 거란의 전쟁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화제다. 고려의 황제인 현종과 그의 정치 스승이자 고려군 총사령관이었던 강감찬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철저한 현실고증과 배우들의 열연을 바탕으로 대중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중이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전투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양규 장군과 김숙흥 장군의 마지막 전투가 상당히 인상 깊었다.

두 장군은 거란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임하게 된다. 마지막이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굳은 결의를 다지고 묵묵히 병사들을 격려한다. “따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장군이 먼저 달려가 그 뒤를 따라 병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장렬한 최후를 맞는다. 나는 이 “따르라”는 한마디가 매우 가슴에 남았다.

“따르라”는 짧은 한마디는 평소 부



이진수 상사
육군부사관학교
양성3교과대

사관을 양성하는 교관으로서 ‘앞으로 육군을 이끌어 나갈 젊은 리더들에게 어떠한 리더십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계기가 됐다.

리더십에는 정도(正道)가 없다. 리더와 팔로워가 모든 그룹에서 항상 같은 상황이 아니므로 상황과 조건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중 많이 교육하고 실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술선수범’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묵묵히 술선수범만 하다가는 ‘같이’가 아닌 ‘혼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앞서 양규 장군처럼 한마디로 명령을 내리고 앞서 달려 나갈 때는 뒤

를 확인하지 않아도 따르고 있을 거라는 리더의 믿음과 어떠한 사지라도 명령 한마디에 달려 나갈 수 있게 하는 팔로워들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러한 믿음은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과 소통하며 믿음을 쌓아 나가야 한다. 또 ‘나는 지금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부사관학교에서는 ‘정통해야 따른다’는 기치를 실천하기 위해 오늘도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전투기술과 리더십을 연마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노력하는 이들은 과거 거란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두 장군의 불사불멸의 의지를 이어 나갈 것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 있게 “따르라”를 외칠 수 있는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누구보다 힘찬 응원을 보낸다.



알림

응모 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분량: 1600자 이내 (공백 포함)
응모 대상: 국군장병, 국방가족, 일반독자
응모 방법: 국방일보 홈페이지 내 ‘병영의 창 기고하기’ 배너 통해 양식 확인 후 이메일로 제출(현역 장병은 부대 정훈 계통 사 전검토 필수). 증명사진(최소 1MB 크기)과 함께 채택 시 기프티콘 수령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포함. 글의 분량이 최대 1600자를 넘지 않도록 유의.
이메일: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letter@mnd.mil
기타: ‘병영의 창’ 등에 글이 게재된 분에게는 매월 말 응모한 휴대전화 번호로 차킨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문자가 스팸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 기입 등으로 인한 발송 오류 및 기프티콘 분실 시 재발송 불가합니다.
문의: (군)947-3735, (일반)02-2079-3735